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the Elder's Subjective Happiness

Sung-a Bang*, Hwie-Seo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affecting factors for the elder's happiness. For this study, we analyzed data using HLM. Data include a world value survey(hereafter, WVS) as personal level analysis data and also OECD's Social Expenditure Database(hereafter, SOCX) and database from the World Bank as national level analysis data. The subjects of personal level analysis were the elder who are over 65-years old age, and they were total 3,297 people, and while the subjects of national level analysis were total 9 OECD countries. For the data analysi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analysis was done by using HLM 7.0 program.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for the elderly 's happiness, they should improve self-disposition, members of social groups, and social class. Second, the old-age pension and the survivor's pension had no meaningful effect on the happiness. but it was found that self - disposition, social class, gender, and health status showed meaningful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old - age pension, survivor pension, per capita GDP, income inequality. This suggests that efforts to improve the happiness of the elderly should be made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Keyword: Social Welfare Expenditure, Cultural Capital, Happiness, HLM

I. Introduction

통계청(2015)보고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5년 8.2%에서 2060년도에는 17.6%로 높아질 전망이다. 2017년 현재 한국에 고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에 1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불안, 소외감, 상실감, 건강악화와 노인 부양비 증가로 인한 가족 내 갈등 등 노인 자신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 삶은 단순한 생명연장의 의미를 뛰어 넘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남아 있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행복에 관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제기구들인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The World Bank(세계은행), World Database of Happiness(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 World Values Survey(WVS, 세계가치조사)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이 그동안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수준이 2017년 OECD 35개국 중 31위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느끼는 행복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며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되 어진 연구로써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국가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으로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First Author: Sung-a Bang, Corresponding Author: Hwie-Seo Park

*Sung-a Bang (bsaep@hanmail.net), Dept. of Administration and Welfare, Chosun University

**Hwie-Seo Park (hspark@chosun.ac.kr), Dept. of Administration and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7. 11. 10, Revised: 2017. 11. 18, Accepted: 2017. 12. 02.

있는 삶의 질 통합모델[1]를 이론적 바탕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에서도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자본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Bourdieu의 문화자본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으며, 첫째,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 둘째는 객관화된 상태의 문화자본, 셋째는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다[2].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되는 또 다른 요인은 사회정책이다. 국제기구나 학술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한 내용 및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국가의 사회지출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OECD의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사회지출 정책 영역 중 본 연구는 노령연금지출과 유족연금지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삶의 질 통합 모델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문화자본과 사회정책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개인수준의 문화자본과 국가수준의 사회복지지출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선행모형(HLM)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변인을 규명,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행복감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Integrative Model of Quality of life.

문화자본·사회정책이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삶의 질 통합모델은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다. Costanza등(2007, 2008)[1]의 삶의 질 통합 모델을 살펴보면, 사회자본은 욕구실현을 위한 자원이자 기회이며 사회정책은 기회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자본·사회정책이 욕구 실현을 위한 투입물이라면 주관적 삶의 질은 결과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자본·사회정책이 주관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직간접·상호작용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도 문화자본과 사회정책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간접효과, 상호작용 효과 모두를 규명하고자 한다.

삶의 질 통합 모델의 특징은 첫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지역사회,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층구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둘째, 사회정책의 목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주관적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사회자본과 사회정책은 장기적·지속가능한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원칙이라는 것이다[3].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중에서도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자본에 주관적 삶의 질의 유사 개념인 행복감으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Costanza등의 삶의 질 통합 모델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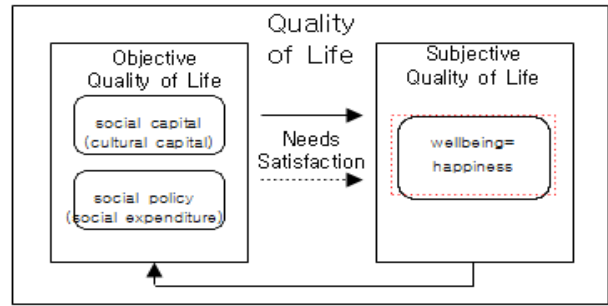


Fig. 1. life's quality model

2. Subjective Happiness

행복(happiness)이란 만족(satisfaction, contentment)과 기쁨(pleasure)의 상태로 정의되며, 'happy'의 어원은 올드 잉글리시와 미들 잉글리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행운과 기회를 의미하며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들인 '우연한 일', '우연', '불운한', '아마도'등이다[4]. 하지만 행복과 행운의 의미가 오늘날 바뀌게 된 것은 1789년 출간된 벤섬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 관한 서설』이 주장하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최대 행복'에서 '행복'은 '쾌락'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5].

행복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쾌락주의의 관점(hedonism approach)과 행복주의 관점(eudemonism approach)으로 구분되어져 왔다. 쾌락주의의 관점의 행복은 주관적 경험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긍정적 정서와 함께 동반되는 인지적 상태로 정의된다[6]. 행복주의의 관점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간은 단순히 쾌락적 행복이 아닌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덕(virtue)을 가지고 살 때 인간답게 살아감을 강조하고 있다[7].

한편 행복을 전통적 관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보다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8]. 이는 행복은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으로 그것은 쾌락에 뿌리를 두고 즐거움과 기쁨 같은 긍정적 정서들이며 이러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철학적 보다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 행복의 기원을 살펴보면, 행복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서양역사에서도 2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동아시아에서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1860년대 이후 쓰여진 것으로 대략 150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다[5].

Bradburn는 행복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정서가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고[9], Diener는 행복은 외적조건(명예, 부, 건강 등)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 느끼는지의 주관적 판단(정서적 요소, 삶의 만족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주관적 안녕(SWB: Subjective Well-Being)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10].

이처럼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쾌리다임으로 해석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요한 것은 목적론적 관점, 진화론적 관점,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란 간에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느끼는 소소한 행복감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3. Cultural Capital

문화자본은 사회학자 Bourdieu(1974)[2]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자신의 태도, 재화, 선호, 학력, 행위, 형식적 가치 등을 의미한다.

Bourdieu는 문화자본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첫째,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으로써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교양, 세련됨, 품위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교양, 세련됨, 품위로 불리는 활동을 행함으로써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을 축적하여 내면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화된 상태는 아동기 이후의 풍부한 문화자본을 갖추고 있는 환경에서 양육되었을 때 형성되어지며, 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화자본의 영향을 아동기에 많이 받는다. 둘째, 객관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으로써 미술작품, 문학작품, 악기, 유적등 물질의 형태로 전수되는 재화 형태의 문화자본을 말한다. 이는 체화된 상태의 자본을 겸비한 삶에 의해 이용되어 질 때 좀 더 문화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한다. 셋째,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으로 교육환경에서 성취의 한 형태으로써 부모에게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개인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된 자본으로 학위나 자격증을 말한다. 즉 학교제도에 의해 얻어지는 학력과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개인능력이나 사회적 가치의 총체를 말한다[11].

문화자본의 가치를 스타일, 능력, 재화로 정의하면서 고급 예술과의 친숙함을 주된 요소로 보고 그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선별기준이 되어 그가 속한 문화적 취향과 양식이 상위계층 구성원지위의 구별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12]. 또한 한 사회에서 지배되고 있는 언어 및 심리적인 선호, 문화적인 코드와 관행, 대인관계 스타일로 제도화된 자본으로 문화자본에 접근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Bourdieu의 문화자본에 대한 개념에 따라 체화된 문화자본을 아이들의 자질, 자신의 성향으로, 객관화된 문화자본을 돈과 물품으로, 사회단체 회원,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사회 계급, 교육수준으로 보고자 한다.

4. Social Welfare Expenditure

국제기구나 학술연구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한 내용 및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국가의 사회지출을 파악하는 것으로 복지노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논의를 같이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지출데이터베이스 SOCX 개념은 Social의 SOC와 Expenditure의 X를 조합한 합성어로 사회지출(SOCX)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복지지출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해 OECD의 기준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보험지출과 일반정부지출뿐 아니라 민간법정지출 및 자발적 지출까지도 포괄시켜 광의개념으로 사회복지지출(SOCX)을 해석하고 있다.

OECD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이란 개인과 가구가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공적제도에 의해 조달되는 재정적 지원이나 사회적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서비스의 직접적인 지급이나 특정재화 혹은 개별 계약이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14]. OECD의 SOCX는 사회정책 분석을 유용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출을 노령, 유족, 노동무능력관련급여, 가족, 보건,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주거, 실업, 기타 사회정책의 9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15].

본 연구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 오는 시기인 노인들에게 연금제도는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회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OECD의 사회복지지출 9개 영역 중 노령연금지출과 유족연금지출에 주목하고자 한다.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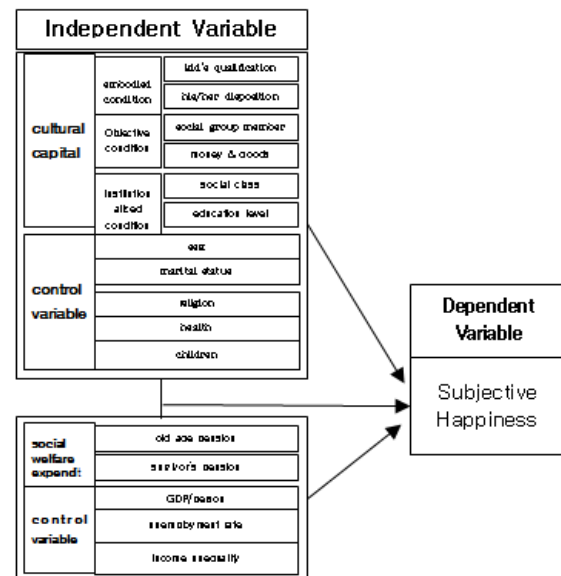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2. Research Problem

연구문제 1. 체화된· 객관화된·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복지지출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의 상호작용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Analytical Objects and Data

개인수준 분석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총 3,297명이며, 국가수준 분석대상은 9개 OECD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미국이다.

본 연구의 개인수준 분석자료는 World Value Survey(이하, WVS)로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100여개국가를 대상으로 보통 5년마다 실시되는 가장 큰 규모인 설문조사이다[16]. 주로 정치, 경제, 생활, 종교, 남녀평등, 윤리적 가치와 규범, 과학 기술, 사회자본, 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258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데이터 중 하나로 확인된 바 있다[17]. 분석 자료는 2010~2014년 동안 자료수집이 완료되어 2016년에 자료를 공개한 WVS6으로 가장 최근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국가수준 분석자료로는 OECD의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와 통제변인인 1인당 GDP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Table 1. Analysis Method and Analysis Model for Research Problems

Research problem	Analysis Method & Analysis Model
• variance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subjective happiness	<Basic Model> • 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research problem 1> •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on Subjective happiness	<Intermediate Model 1> •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research problem 2>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Subjective Happiness • The Net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Subjective Happiness	<Intermediate Model 2> •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Research Model 1> • Intercepts as Outcome Model
<research problem 3> • The Interaction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Subjective Happiness	<Research Model 2> • Intercepts as Outcome Model •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V. Empirical Analysis

1. Basic Model

기초모형은 HLM의 최소모형으로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에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인인 행복감의 집단 구분만 있는 모형에 해당된다.

행복감에 대한 고정효과 분석결과 OECD9개국의 노인의 행복감의 평균은 3.216으로 기초 통계로 산출된 평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행복감에 대한 개인·국가수준 차이의 변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선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수준 내 변량은 0.352이며, 국가수준 간 변량은 0.02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출한 집단 내 ICC계수는 0.073으로 행복감의 전체 변량 중 7.3%가 국가 간 차이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2.7%는 개인 간 차이로 나타났다. ×2검증결과, 행복감은 국가 간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계선형모형의 통계적 필요성과 더불어 행복감의 차이가 개인수준 변인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변인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행복감에 대한 기초모형에 대한 수식이다.

Level-1 Model $행복감_{ij} = \beta_{0j} + r_{ij}$

Level-2 Model $\beta_{0j} = \gamma_{00} + u_{0j}$

Table 2. Results of basic model analysis for happiness

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intercept	3.216	0.057	56.028
Random Effects	S.D.	Variance	×2
Between group Variance	0.168	0.028	211.002*
Within group Variance	0.593	0.352	**
ICC	0.073		

* *: p< .05, **: < .01, ***: p< .001

2. Intermediate Model 1 :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on Subjective happiness

행복감에 대한 중간모형1의 고정효과 분석 결과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문화자본 중 자신의 성향(t=4.410, p<.001), 사회단체회원(t=2.093, p<.05), 사회계급(t=5.995, p<.001)이 행복감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친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들의 자질, 돈과 물품,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t=-3.514, p<.001), 결혼상태(t=8.931, p<.001), 건강상태(t=20.787, p<.001)는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와 자녀유무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에 대한 개인수준변인의 설명량(R2)은 18.1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on Happiness

	fixed effects	coefficient	S.E	t
	intercept	1.525	0.160	9.494***
cultural capital	children's qualification	0.045	0.102	0.439
	disposition	0.202	0.045	4.410***
	money&goods	-0.011	0.009	-1.163
	social group member	0.035	0.016	2.093*
	social class	0.074	0.012	5.995***
	education level	-0.018	0.014	-1.276
control vars.	sex	-0.068	0.019	-3.514***
	marriage status	0.192	0.021	8.931***
	religion	0.036	0.021	1.742
	health condition	0.253	0.012	20.787***
	children	0.570	0.034	1.632
random effects		S.D	V.C	×2
Between group variance	0.113	0.012	107.249***	
Within Group Variance	0.537	0.288		
Random Effects		variance R2		
Within group Variance before Input	0.352	18.18%		
Within Group Variance after Input	0.288			

* *: p< .05, **: < .01, ***: p< .001

2. Intermediate Model 2 :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Subjective Happiness

행복감에 대한 중간모형2의 고정효과 분석 결과 국가수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지출 중 노령연금지출($t=3.160, p<.10$)은 정적인 영향을 유족연금지출($t=-6.420, p<.01$)은 부적인 영향을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은 1인당 GDP($t=3.097, p<.01$)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과 소득불평등도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의 국가수준변인의 설명량(R2)은 100%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Table 4.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happiness

	fixed effects	coefficients	S.E	t
	intercept		0.982	0.827
Social Welfare Expenditure	old-age pension	0.032	0.010	3.160*
	survivor's pension	-0.242	0.037	-6.42***
control variable.	GDP/person	0.237	0.076	3.097*
	unemployment rate	0.004	0.003	1.438
	unequality of income	0.277	0.133	2.088
random effects		S.D	V.C	×2
Between group variance		0.026	0.000	5.192
Within Group Variance		0.593	0.352	
Random Effects		variance	R2	
Within group Variance before Input		0.028	100%	
Within group Variance after Input		0.000		

* *: $p < .10$, **: $p < .05$, ***: $p < .01$

3. Research Model 1 : The Net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Subjective Happiness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고정효과 분석 결과, 문화자본 중 개인수준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자신의 성향, 사회단체 회원, 사회계층이 국가수준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자신의 성향($t=4.415, p<.01$), 사회단체 회원($t=2.069, p<.05$), 사회계층($t=5.963, p<.01$)이 여전히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통제 변인은 성별, 결혼상태, 종교, 건강상태, 자녀유무 모두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수준변인을 투입한 후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통제 변인 중 1인당 GDP는 국가수준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나 개인수준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여전히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효과 분석결과, 행복감에 대한 국가수준변인과 개인수준변인의 설명량(R2)은 92.85%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행복감에 대한 문화자본 및 사회복지지출의 순수효과에 수식이다.

Level-1 Model

$$\text{행복감} = \beta 0j + \beta 1j*(\text{아이들 자질}) + \beta 2j*(\text{자신의 성향}) + \beta 3j*(\text{사회단체회원}) + \beta 4j*(\text{돈과 물품}) + \beta 5j*(\text{사회계층}) + \beta 6j*(\text{교육수준}) + \beta 7j*(\text{성별}) + \beta 8j*(\text{결혼상태}) + \beta 9j*(\text{종교유무}) + \beta 10j*(\text{건강상태}) + \beta 11j*(\text{자녀유무}) + r_{ij}$$

Level-2 Model

$$\beta 0j = \gamma 00 + \gamma 01*(\text{노령연금}) + \gamma 02*(\text{유족연금}) + \gamma 03*(\text{실업률}) + \gamma 04*(\text{1인당 GDP}) + \gamma 05*(\text{소득불평등도}) + u_{0j}$$

$$\begin{aligned} \beta 1j &= \gamma 10 \\ \beta 2j &= \gamma 20 \\ \beta 3j &= \gamma 30 \\ \beta 4j &= \gamma 40 \\ \beta 5j &= \gamma 50 \\ \beta 6j &= \gamma 60 \\ \beta 7j &= \gamma 70 \\ \beta 8j &= \gamma 80 \\ \beta 9j &= \gamma 90 \\ \beta 10j &= \gamma 100 \\ \beta 11j &= \gamma 110 \end{aligned}$$

Table 5. The net effect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happiness

	fixed effects	coefficients	S.E	t
	intercept		-1.298	1.034
individual level vars.	children's qualification	0.037	0.102	0.368
	disposition	0.202	0.045	4.415***
	money& goods	-0.011	0.009	-1.132
	social group member	0.034	0.016	2.069**
	social class	0.073	0.012	5.963***
	education level	-0.021	0.014	-1.508
control vars.	sex	-0.069	0.019	-3.533***
	marriage status	0.193	0.021	9.000***
	religion	0.035	0.021	1.700*
	health condition	0.251	0.012	20.645***
country level vars.	children	0.057	0.034	1.650*
	the aged pension	0.019	0.014	1.309
	survivors' pension	-0.108	0.052	-2.062
control vars.	GDP/person	0.280	0.095	2.939*
	unemployment rate	0.001	0.004	0.325
	income unequality	0.157	0.191	0.820
random effects		S.D	V.C	×2
Between group variance.		0.050	0.002	13.852***
Within group variance		0.537	0.288	
random effects		variance	R2	
within group variance before input		0.028	92.85%	
Between group variance after input		0.002		

* *: $p < .10$, **: $p < .05$, ***: $p < .01$

4. Research Model 2 : The Interaction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Subjective Happiness

개인수준변인이 행복감의 영향에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지 회귀계수에 대한 무선희과를 분석한 후, 국가 간 차이가 있는 개인수준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개인수준변인과 국가수준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실시하였다.

4.1 Slope Model for Happiness

개인수준변인의 회귀계수에 대한 무선희과분석을 위해 행복감에 개인수준변인을 투입하여 무조건적 기울기모형(unconditional slop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신의 성향, 사회계급, 성별, 결혼상태, 건강상태가 국가 간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개인수준변인과 국가수준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실시하였다.

Table 6. The slope model of cultural capital for happiness

	fixed effects	coefficients	S.E	t
	intercept	1.530	0.330	4.635***
individual level vars/slope	children's qualification	0.183	0.213	0.861
	disposition	0.174	0.060	2.867**
	money & goods	-0.007	0.011	-0.616
	social group member	0.040	0.025	1.589
	social class	0.082	0.022	3.729***
	edu. level	-0.022	0.015	-1.438
control vars/slope	sex	-0.069	0.031	-2.180*
	marriage status	0.193	0.025	7.657***
	religion	0.034	0.023	1.466
	health condition	0.249	0.020	12.053***
	children	0.064	0.041	1.540
random effects		S.D	V.C	×2
	intercept	0.836	0.699	10.999***
	disposition	0.106	0.011	3.905**
	social class	0.053	0.002	1.546
	sex	0.073	0.005	6.634***
	marriage status	0.039	0.001	0.511
	health condition	0.048	0.002	0.360

* *: p< .10, **: < .05, ***: p< .01

4.2 The Analytical Results of Effects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Subjective Happiness

개인수준변인과 국가수준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 자신의 성향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1인당 GDP에, 사회계급과 성별은 1인당 GDP에 건강상태는 소득불평등도에 따라 행복감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상태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시켰다.

다음은 행복감에 대한 문화자본과 사회복지지출의 상호작용의 수식이다. 자신의 성향, 사회계급, 성별, 결혼상태, 건강상태에 국가수준변인을 각각 한 개씩 투입하였으며 아래 수식은 한 개씩 투입했던 모형을 합쳐놓은 수식이다.

Level-1 Model

$$\text{행복감} = \beta 0j + \beta 1j*(\text{아이들 자질}) + \beta 2j*(\text{자신의 성향}) + \beta 3j*(\text{사회단체회원}) + \beta 4j*(\text{돈과 물품}) + \beta 5j*(\text{사회계급}) + \beta 6j*(\text{교육수준}) + \beta 7j*(\text{성별}) + \beta 8j*(\text{결혼상태}) + \beta 9j*(\text{종교유무}) + \beta 10j*(\text{건강상태}) + \beta 11j*(\text{자녀유무}) + r_{ij}$$

Level-2 Model

$$\beta 0j = \gamma 00 + u_{0j}$$

$$\beta 1j = \gamma 10$$

$$\beta 2j = \gamma 20 + \gamma 21*(\text{노령연금}) + \gamma 22*(\text{유족연금}) + \gamma 23*(\text{실업률}) + \gamma 24*(\text{1인당 GDP}) + \gamma 25*(\text{소득불평등도}) + u_{2j}$$

$$\beta 3j = \gamma 30$$

$$\beta 4j = \gamma 40$$

$$\beta 5j = \gamma 50 + \gamma 51*(\text{노령연금}) + \gamma 52*(\text{유족연금}) + \gamma 53*(\text{실업률}) + \gamma 54*(\text{1인당 GDP}) + \gamma 55*(\text{소득불평등도}) + u_{5j}$$

$$\beta 6j = \gamma 60$$

$$\beta 7j = \gamma 70 + \gamma 71*(\text{노령연금}) + \gamma 72*(\text{유족연금}) + \gamma 73*(\text{실업률}) + \gamma 74*(\text{1인당 GDP}) + \gamma 75*(\text{소득불평등도}) + u_{7j}$$

$$\beta 8j = \gamma 80 + \gamma 81*(\text{노령연금}) + \gamma 82*(\text{유족연금}) + \gamma 83*(\text{실업률}) + \gamma 84*(\text{1인당 GDP}) + \gamma 85*(\text{소득불평등도}) + u_{8j}$$

$$\beta 9j = \gamma 90$$

$$\beta 10j = \gamma 100 + \gamma 101*(\text{노령연금}) + \gamma 102*(\text{유족연금}) + \gamma 103*(\text{실업률}) + \gamma 104*(\text{1인당 GDP}) + \gamma 105*(\text{소득불평등도}) + u_{10j}$$

$$\beta 11j = \gamma 110$$

Table 7. The interaction effect of cultural capital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happiness

	fixed effects	coefficients	S.E	t
disposition	intercept	-1.052	0.332	-3.163*
	the aged pension	0.009	0.003	2.672*
	survivor's pension	-0.045	0.013	-3.347*
	GDP/person	0.099	0.027	3.579*
social class	intercept	-0.615	0.342	-1.794
	GDP/person	0.071	0.031	2.262*
sex	intercept	-3.719	1.046	-3.556*
	GDP/person	0.344	0.096	3.572*
health condition	intercept	-0.398	0.413	-0.964
	income inequality	0.162	0.064	2.530*
random effects		S.D	V.C	×2
	disposition	0.161	0.026	9.945
	social class	0.048	0.002	3.178
	sex	0.092	0.008	7.600
	health condition	0.038	0.001	0.837

* *: p< .10, **: < .05, ***: p< .01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삶의 질 통합 모델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개인 수준의 문화자본과 국가수준의 사회복지지출로 측정하여 노인

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노인의 행복을 설명하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변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수준변인만을 투입했을 때 자신의 성향, 사회단체 회원, 사회계급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변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도 자신의 성향, 사회단체 회원, 사회계급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아이들의 자질, 돈과 물품, 교육수준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국가수준변인만을 투입했을 때 노령연금지출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유족연금지출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변인을 추가 투입한 후에는 노령연금지출과 유족연금지출 모두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 자신의 성향은 노령연금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의 성향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유족연금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계급과 성별은 1인당 GDP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상태는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에 따라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성향, 사회계급, 성별, 건강상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1인당 GDP, 소득불평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존연구들은 OECD국가들의 거시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거나, 집단수준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면 본 연구는 OECD국가들에서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노인대상을 선정한 것과 오차변량과 공변량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위계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행복감을 위해 자신의 성향, 사회단체 회원, 사회계급에 대해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품위, 세련됨, 문학작품, 악기 등 교양으로 불리는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행할 수 있도록 아동기 때부터 성인, 노인이 되어서까지 풍부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연, 미술 관람, 악기 동호회 등 좀 더 적극적인 문화체험 제공으로 인하여 체화된 문화적 상태가 노인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훨씬 더 행복감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다.

둘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적 부와 생활 조건 등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개인의 행복감과 비례했지만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성이 없다는 선행연구

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경제 상태의 만족여부에 대한 주관적 생각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보다 문화 활동이 노인들에게 긍정적 관계형성과 질을 높이는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향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1인당 GDP에, 사회계급과 성별은 1인당 GDP에, 건강상태는 소득불평등도에 따라 행복감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한 노력이 개인과 국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양인구증가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의 재정손실 및 연금고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가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공적 소득보장의 확대를 위해 노령연금제도의 현실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행복수준이 높은 스웨덴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각 개인들의 공적연금 가입기간동안의 비용부담과 연금급여가 연계되도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이원화된 연금제도의 전달체계가 아닌 호주처럼 효율적 전달을 위해 연금보험 및 기초연금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할 점이다. 즉 전체적으로 개인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다각적인 방향으로 문화자본의 형성 및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정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REFERENCES

- [1] Costanza, R., Fisher, B., Ali, S., Beer, C., Bond, L., Boumans, R., Farley, J. (2008). "An integrative approach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research, and policy", *Surveys and Perspectives Integrating Environment and Society*, 1(1): 17-21.
- [2] Bourdieu, P., & Brown, R. (1973). *Knowledge, education, and cultural change. Knowledge, Education and Cultural Change*. London: Tavistock.
- [3] seo, Jeong A. (2013).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Expenditures on the Subjectivw Well-being of Adolescents.: Evidence from 16 OECD Countries*.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4] McMahan, D. M. (2008). *The pursuit of happiness in history.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80-93.
- [5] Tak jae-san (2014). *Happy stress*. Seoul: Changbi.
- [6] Kraut, R. (1979).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The Philosophical Review*, 88(2), 167-197.
- [7] Lee, Young-Hwa & Lim, Wang-Kyu(2011). *Effects of*

- the Long-Term Caregivers' Job Stress on Psychological Burnou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9), 414-428.
- [8] Seo Eun-guk (2017). *Origin of Happiness, Book of the 21st Century*.
- [9]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 [10] Diener, E., Larsen, R. J., & Emmons, R. A. (1984). Bias in mood recall in happy and unhappy persons. In *9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11] Kang, Hye Ryeon(2014). *The effect of the capital on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Ph. D.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 [12] DiMaggio, P., & Useem, M. (1982). The arts in class reproduction. *Cultural and economic reproduction in education*, 181-201.
- [13] Aschaffenburg, K., & Maas, I. (1997). Cultural and educational careers: The dynamics of social reprodu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3-587.
- [14] OECD. (2017). *The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 Interpretive Guide*.
- [15] OECD(2017). <http://www.stats.oecd.org>
- [16] world value survey.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17] Veenhoven, R. (2007).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In *Human Well-Being* (pp. 214-239). Palgrave Macmillan UK.

Authors



Bang, sung-a received the Ph.D. from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in 2017. Dr. Bang is a researcher of Korean Culture & Welfare Institute and currently a lecture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social welfare policy, game addiction, Counseling Psychology, music therapy, etc.



Hwieseo Park received MA, Ph.D. degree of Public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81, 1993, respectively. Dr. Park is currently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Non-profit Marketing, Social Welfare Policy and Community Social Welfare.